

2019년 5월 1일, 서귀포시 영천동(상효동) 상효동마을회관, 오창순 조사.

제보자1: 양유정(여, 1938년생, 서귀포시 상효동)

-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생으로 25세에 결혼하여 현재까지 상효동에서 살고 있다.

제보자2: 김춘옥(여, 1939년생, 서귀포시 상효동)

- 서귀포시 토평동 출생으로 25세에 결혼하여 현재까지 상효동에서 살고 있다.

• 줄거리: 일곱 형제의 아버지가 바람이 났는데 작은부인이 본처를 죽이고 아픈 척하며 일곱 형제의 간을 먹어야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였다. 일곱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는데, 작은아들에게 들켜 죽어서 돛통에 버려진다. 그래서 큰부인이 있는 부엌과 작은부인이 있는 변소는 멀어야 좋다고 한다.

[제보자1] 들어난 옛말이 무신 것산디.

[조사자] 곱사 골아난 것추록 곱읍서게.

[제보자1] 하르방이영 큰어명이영 살안 아덜 일곱 개나 신디 하르방이 보름 피완 죽은각 실 해부난 죽은각시가 큰어명이영 목욕허레 갓어. 게난 그게 여잔지 남잔지도 몰라. 난 쯔청비가 쯔청비야 쯔청비야 노래허는 걸 봐나 부난 등어릴 미는디 큰어명이 죽은어명 등어릴 밀어 주젠 허난 죽은어명이 성님 무사 성님을 내비동 내가 나 등어릴 밍니까 헤네 등어리 미는추록 허당 큰어명을 거려밀려 부난 큰어명은 죽엇어. 죽어부난.

[제보자2] 냇가에서, 것도 내창에.

[제보자1] 내에 물에서 죽어 부난.

[제보자2] 거 미신 소앵 알라 몬 골아났인디 우린 못 곱아.

[제보자1] 집이 오난 남자 생각엔 죽은어명이 아니 아파도 아프노렌 허명 탁 들어누난 죽은각시가 큰각신 죽어부난 드러누원 허는 말이 소나이안티 허는 말이 아덜 일곱성제 애 내영 왕 먹으민 좋으켄 경 곱으난. 게민 애 내어당 주켄, 게네 산에 간 보난 산도새기 일곱 애 내당 주난 초석 짚안 눈디, 초석 짚안 눈 디서 애 내다 주난에 그걸 이젠 먹는추록 먹는추록 허명 몬딱 초석 알더레 물어부난.

[제보자2] 으쓱겐 허곡.

[제보자1] 게메 으쓱겐 물어부난.

[제보자2] 씨깅으로 놔뒀덴 허주게 허난.

[제보자1] 소나이가 와네 허는 말이

“다 먹었어?”

허난 다 먹었인디, 허나 더 먹어사 좋으켄 험우덴. 그 말을 대답허난, 그 말 대답허는 걸 아덜이 족은아덜이 뵈단 바깳디서.

[제보자2] 이룬디 몬 중창에서.

[제보자1] 뵈다네 들어오라네 성님 대듭서, 그 사름이 젔 족은아덜 아니. 두 번째도 대듭서, 세 번째도 대듭서, 네 번째도 대듭서, 다섯 번째도 대듭서, 으쓱 번째도 대듭서, 일곱째 이젠 그 사름 빼민 으쓱 개주. 말 성 빼민 으쓱 개 일곱 개가 다 대드난, 보난 초석 아래 곱앗이나네 그 사름 허운데기 심언, 족은어멍, 족은어멍 허운데기 심어 메어 불곡 허난, 몬 족은어멍이 죽으난에 이빨은 뿔안 바당덜에 데끼난, 대수알이 뒹불곡, 손콥은 뵈 데껴부난 굴뚝딱지가 뒹불곡, 족은어멍은 화장실 아고 벤소 아 돛통 돛통 뒹불곡, 큰어멍은 정제가 뒹 거라.

게난 우리가 살민서 정제허곡 부엌 7찌 못허는 것이 큰어멍은 정제서 곱게 살곡 족은어멍은 디덜팡 아래 사난에 족은어멍은 도새기 똥 그 먹는 사름이 뒹 부난 그 그디서 헤난 부지땡이도 앓어당 옛날에 불도 못 솟곡.

[제보자2] 부엌에서 화장실에도 못 가곡.

[제보자1] 부엌에 건 돛통에 가곡, 먹덩 거 돛통에 강 도새기 쥐도 먹곡. 먹어도 탈이 업곡 큰어멍이니까 족은어멍에치 쓰당 거는 큰어멍이 오랑 먹으민 탈 낭으네 우리 옛날에 그것7라 미시거엔 곱읍니까. 막 물 주으으네 뵈 구완허는 것7라 뵈엔 곱읍니까. 잊어비연 못 곱아지크라 그 말을.

[제보자2] 물 주영 허는 것 곱아.

[제보자1] 동티낫젠. 족은어멍에 거 쓰당 거 큰어멍신디 아정 왕 쓰나 먹으나 행은 동티경 사름이 몬 아팡 죽어가. 게민 그 동티를 큰어멍이 그 동티를 구완헤영 돛통덜에 앓당 몬 데껴불민 그 동티도 좋곡, 큰어멍이 허면 큰어멍 상에 큰어멍이 허면 존 디, 족은어멍에 죽은 사름 족은어멍에 큰어멍 큰어멍신드레 허민 하나

도 죽일 수도 업곡. 아무거 해 볼내기가 엇인 사름으로 살앗주게. 난 그게 귀일이
이똥이엔 헌 것이 어멍인가 원원 아방인가 몰라.

[제보자2] 그 족은각시어멍이 노일저대귀일이똥이엔 곤주. 족은할망이 귀일이똥. 그 귀일이
엔 헌 할망이 똥을 그 세 번차 각시로 보내멍 노일저대귀일이똥 경 곶아 낫주만은
원 그걸 경 다시 되풀이헐 중 알앗이민 아 이때 어른덜 곤는 걸 잘 들을 걸.

[제보자1] 시집온 후제 심방질허멍도 험디다마는.

[제보자2] 심방질허멍도 헛주게. 이디 ○○이 할망.

[제보자2] 그 할망이 허는 거 들엇주게.

[제보자2] 구짜 험낫주게. 경헤도게 그걸 경 되풀이헐 중 알앗어. 게난 이걸 중간으로 곶
아짐 어평험 몰르는 거주게.

- 핵심어: 일곱 성제(일곱 형제), 큰각시(큰부인), 족은각시(작은부인), 돛통(변소), 정제(부엌), 산도새기(산돼지), 애(간), 동티(동토), 노일저대귀일이똥(노일저대귀일이똥), 심방(무당)